

예술·스포츠·음식·쇼핑...알고보면 신나는 도시

예향의 멋·남도의 맛·스포츠 등 볼거리·즐길거리 수두룩
챔필~복합쇼핑몰~ACC 연결 매력적인 콘텐츠 만들어야

지난달 30일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서는 한국시리즈 V 12의 영웅들이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의 승리 축하 카 퍼레이드가 열렸다. 시민들은 식지않은 열기속에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었고 30년 연륜을 자랑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총장축제는 여전히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붐볐고 버스킹 월드컵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도 즐기는 광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됐다. 재미없는 도시,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아의 승리 직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에서 야구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분노·울분을 표출하고, 희망·환희를 공유하는 장이 되는 등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광주의 대표적 자산인 예향(藝鄕)의 전통과 남도의 맛, 스포츠 등을 잘 융합해서 엮어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복합쇼핑몰-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잇는 스포테인먼트 구상"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 때마침 지난 대선 이후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있는 광주의 복합쇼핑몰 신축사업이 '머물고 즐기는 쇼핑문화'의 계기가 되어 도시브랜드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인 만큼 강시장의 스포

테인먼트 구상은 현실성이 있게 들린다.

광주는 역시 민주화의 상징도시다. 그러나 5.18은 지난 40여년간 저항과 투쟁의 이미지를 덧칠해왔다. 오랜기간 진보진영의 전유물이기도 했다. 이제 5·18은 전국민이 인정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 되었지만 광주는 그 때문에 엄숙주의와 비장함을 도시 분위기로 갖게 되었다.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도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던 광주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랜 예향의 전통을 가진 광주엔 야구와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말고도 곳곳에 즐길거리가 많다. 가성비 최고의 음식문화도 찬란하다. 다만 이들을 연계해 번듯하게 포장한 관광상품이나 킬러콘텐츠가 없을 뿐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민은 광주만의 고민은 아니다.

챔피언스필드~쇼핑몰~ACC간 연결 방안도 마련된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KBSITV '생방송 토론 740'에서 "챔피언스필드와 더현대, 신세계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행 전용 '에코 브릿지'와 그린로드 조성 등 이동권을 보장한 뒤 매력물 등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 낸다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체류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들은 갖춰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더 이상 재미없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민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주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지 않을까. /윤재영 학생기자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의 상징인 오후 금남로 퍼레이드 모습. 올해엔 G-페스타 행사와 함께 치러졌다.

'G-페스타 광주'서 재미난 도시 미래 봤다

지역축제 통합 한달동안 활기 가득
동시다발적 행사로 정체성 우려도

10월은 축제의 달! 민선자치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연중 지역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특히 10월엔 행사들이 집중된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 선보인 지역축제 통합브랜드 '2024 G-페스타 광주'는 광주 대표축제인 총장축제를 비롯, 여러 축제, 이벤트, 전시회들을 하나로 묶어 광주를 한달 내내 흥겹고 재미난 축제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 기획물이었다.

2024 G-페스타 광주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지역의 17개 축제, 행사, 마이스(MICE)를 통합 브랜드하여 진행됐다. 예술과 맛의 도시인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2025 주요 행사 세부내용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려왔던 행사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도리어 각각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4 G-페스타 광주는 예술을 주제로 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 미식을 주제로 한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구분돼 운영됐다. 시즌1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추억의 총장축제 등 11개 행사, 시즌2는 광주식품대전과 광주김치축제 등 6개 행사로 구성됐다.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인 만큼 올해 여러 행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총장축제' 기간 '광주버스킹월드컵'이 함께 열렸으며,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와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광주 에이스 페어가 비슷한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또한 김치축제 기간엔 '도시농부 축제'와 '헬로콘서트 좋은날'이 함께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단순히 하루 행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기간 각기 다른 곳에서 열려왔던 행사들을 연말에 즐길 수 있게끔 연계 강화함으로써 체류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에 다가섰다. G-페스타 광주 기간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은 연일 선착순 마감됐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에선 총장축제와 같이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고유 축제의 빛이 희석됐다는 평도 나왔다. 일각에선 같은 기간 너무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치러 혼란스러웠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이번 G-페스타 광주가 열린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100개 이상의 행사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렇게 많은 행사들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일정을 조정하고 분산시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던 19일은 G-페스타 광주에 포함된 5개 행사 '광주 서장 역사축제', '광주 식품대전', '광주 김치축제', '광주 주류관광 페스타' '광주 송정 남도맛페스티벌'이 한꺼번에 열렸다. '맛'을 주제로 하는 여러 행사들이 같은 기간 진행되면서도 청춘문화 프로그램 '주말은 청춘', 광주 대표음식 요리 경연대회, ACC 2024 마켓나이다어, 광주 국제 차문화 전시회, 굿모닝 양림 인문학 축제 등 크고 작은 20여 개 행사가 광주에서 진행되면서 관광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가 첫발을 댄 만큼 시험대 성격이 강했기에 개선점을 더욱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감도 높다.

관광 전문가 전고필 씨는 "광주의 여러 축제와 행사들을 단일한 브랜드 하에 움직였을 때의 힘이 있다"며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에서 휘발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 축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G-페스타 광주를 마치고 성과와 보완할 점, 내년 연계 콘텐츠 구성 등을 논의해 G-페스타 광주를 알차게 꾸미겠다고 밝혔다. /정지은 학생기자

◇2025년 광주광역시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주요 행사 내용	장소
3월	고싸움놀이축제	고싸움, 고누대회, 큰줄다리기 등	고싸움놀이테마파크
	ACC하우편	어린이 전시, 공연, 교육, 체험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5월	광산뮤직ON페스티벌	뮤지션 공연, 피크닉존, 체험 등	황룡천수공원
6월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	1:1 댄스배틀, 팀퍼포먼스 경연, K-POP 댄스체험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8월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월드뮤직 아티스트 초청공연, 기획공연, 워크숍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광주프리미어페스티벌	거리예술공연, 스트리트댄스 등	금남로, 비엔날레 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
	비어페스트 광주	맥주 판매, DJ공연, EDM댄스파티, 이벤트 등	김대중컨벤션센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양궁체험 등	5.18민주광장-양궁국제경기장
10월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국내 뮤지션 공연, F&B 등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총장댄스나이트, 추억감성콘서트, 금남로 만찬 등	금남로, 총장로
	광주 버스킹 월드컵	국내외 버스킹 뮤지션 경연, 공연 등	5·18민주광장, ACC하늘마당
	광주서창역새축제	역새길 걷기, 포토존, 생태힐링체험 등	극락교~서창교 영산강변
	광주김치축제	천인의 밥상, 김치경연, 체험, 직거래 장터 등	극락교~서창교 영산강변
	굿모닝! 양림	인문학강연, 시낭송, 전시회, 공연 등	양림동 일원
12월	동명동 커피산책	올해의 커피, 카페투어 등	동명동 카페거리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트리 점등식, 캐롤 버스킹, 포토존 등	사직동, 양림동, ACC, 동명동

대박 어디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호남대학교

2020~2024 인공지능 특성화부문 국가서비스대상

5년연속 수상